

출장보고서

# 한국의 OECD 가입 25주년 세미나

2021. 11

**KDI** 한국개발연구원

##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한국의 OECD 가입 25주년 세미나(주OECD 한국대표부 주최)에 참석

### 활동내용:

- 세미나(Korea and OECD: 25 Years and Beyond)의 세션1 (Macroeconomy and Digitalisation)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
  - 일시: 2021년 10월 28일
  - 장소: OECD Headquater
- 참석자
  - 사회: Randall Jones  
(Former Head of Korea/Japan Desk, OECD)
  - 패널: Duck Pilat, Romina Boarini, Vincent Koen  
(이상 OECD), Wonki Min(과학기술혁신 대사), Dongsoo Kang

### 출장기간

- 2021년 10월 27일 ~ 2021년 10월 31일

### 출장자

- 강\*\*

## 2. 출장 일정

출장 기간	활동 사항
10월 27일	출국, 파리 도착
10월 28일	세미나 참석, 한국대표부 대사 면담
10월 29일	OECD 한국데스크 면담, 한국대표부 면담
10월 30일	파리 출발
10월 31일	서울 도착

### 3. 출장 내용

#### ▮ 세미나 참석

- 행사 프로그램 및 발언록 첨부파일 참조

#### ▮ 기타

- 고흥권 대사와 민원기 대사 면담 (10월28일, 18:00~, 대사 관저)
  -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로서 고흥권 대사의 OECD 활동 참여에 관한 소개. 한국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 외교. 민원기 대사(전 과기부 차관)는 과거 OECD 대표부의 근무, OECD 위원회 참여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고흥권 대사의 외교방식에 대한 자문
- 장정진 공사참사관 면담 (10월 28일, 13:30~15:00, OECD 인근 카페)
  - OECD 사무국에서 한국직원의 역할. 현재 Division Head 급의 직원에 사실상 전무(HRM에 한명 있긴 함)한데, Division Head의 역할이 상위 경영진과 하위 실무진의 중간에 있는 간부인 만큼 한국의 외교역량 강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선 한국정부의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함.
- 한국/스웨덴 데스크 면담 (10월 29일, 11:00~12:00 OECD 사무국 카페)
  - Yonn Pareliussen(데스크헤드), 범진완조사역(기재부 파견), 황현정(이코노미스트)
  - 2011년 11월 중순에 한국경제리뷰 보고서 집필을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 KDI에는 11월 19일 협의 예정임.
- 김건 공사 면담 (10월 29일, 17:00~21:00, OECD 대표부/식당)
  - 금융위 출신인 김건 공사는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 OECD 사무국 중 경제국(ECO)과 기업금융국(DAF)의 활동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음. 황희정 주불대사관 재정관(기재부 출신)과의 공동 면담에서 KDI의 관련회의 지원을 요청받음.